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

이연숙
중재위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애틀랜타 올림픽의 메달 소식을 고대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여성선수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또 모든 여성 선수들은 정말로 선전을 했습니다. 금메달 일곱 개 중 남성이 두개, 여성이 네 개 그리고 혼성팀이 한 개를 따냈습니다. 여성이 두 배의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선수단의 여성 비율은 남성에게 비해 3분의 1(312명 중 118명)을 약간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진의 여성 수는 코치를 포함한 임원의 경우 116명 중 6명, 본부 임원이 : 44명 중 6명으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었습니다.

신문에는 날마다 사람들에 관한 소식과 행사에 관한 안내가 실립니다. 10여건의 소식이 실려도 여성이 소개되는 경우는 10% 미만에 그칩니다. 행사 참석자가 10여명씩 늘어서도 여성이 끼어있는 경우는 드물게 보입니다. 여성 단체들의 행사는 많은 데도 안내나 소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봉사 활동에 찬사를 보내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전적으로 희생하는 모성과 주부상을 미화합니다.

일일 연속 방송극으로 방송 대상을 받은 "바람은 불어도"에서 그 집의 며느리들은 자기 개발을 포기하고 가족이 쉽게 분담할 수 있는 단순한 가사 노동까지 떠맡아 평생을 굶은 일에 바칩니다. 그 중에서 교육 받은 며느리가 자기 실현을 위해 기존 관행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극중 다른 인물들의 곱지 않은 눈길은 물론 시청자에 의해서도 평가절하됩니다.

최근 시청률이 높다는 주말 연속극, "목욕탕집 남자들"에서 남자가족들이 편하게 모여서 목욕하는 동안 여성들은 밥하고 청소나 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남성들은 모두 직업이 있어 출근하고 나면 여성들은 이 집 저 집 몰려 다니며 비생산적이고 덜 중요한 일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만며느리가 대가족 제도의 굴레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호소할 때까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도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이라는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군림할 수 있는 권리를 여성들은 체험을 통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고 삭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여성들의 의견을 기이하게 바라보고 등을 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관행은 아들 선호를 부채질하고 2005년 무렵에는 결혼 적령기에 여성이 크게 부족해져서 장가 못 가는 총각이 100명 중에 20명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지경입니다. 병아리 감별하듯 태아의 성 감별을 해서 아들이면 분만하고, 딸이면 낙태 수술을 받는 부도덕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귀히 여기지 않는 아버지는 없지만 자기 딸이 아닌 모든 여성에게 남성 위주의 사회는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망라해서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성취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HISTORY 라고 씁니다. 어원을 따져 보면 his story 즉 '남성들의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역사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성이 중심이 되어 끊임없이 발전과 개발을 이룩해 온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인류의 행복이 아닌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의 파괴가 앞서서 닥쳐왔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힘과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던 남성의 특성이 급기야는 폭력과 부패를 초래하여 정의와 질서가 파괴되고 인간의 기본권행사마저 방해받는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남성의 특성이 주가 되어 근육과 힘, 속도와 추진력을 토대로 성급하게 밀어붙인 결과는 아니었을까요?

이제 인류가 자멸을 피하기 위해서 여성 성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특성은 생명을 잉태해서 참고 기다리다, 낳아서 성장시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직성, 치밀성, 섬세함과 참을성, 지구력과 포용력을 두루 갖추게 했습니다. 집안의 환자를 간병하고 시부모, 시댁 식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한 자녀와 그들의 식솔들까지 보살피는 대인 관계에서 순발력과 창의성, 친화력과 융통성 그리고 관찰력까지 고루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병든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일에, 폭력과 부패를 줄이는 일에 남성 성과 함께 여성 성도 참여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성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하위직 단순 업무나, 서비스업, 하위직 공무원수준에는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차별을 심하게 감수하고 있습니다. 여교사가 절반을 넘어선 초등학교에 여교장은 40%에 불과합니다. 노총에 가입한 여성 노동자는 23%인데도 노총의 선출직 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몇 안 되는 노조 간부직도 대부분 여성 관련 직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 학사와 석·박사 수는 많아도 대학교수 비율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은 예·체능계와 가정대학 등을 통틀어 10%에 불과합니다.

성직자의 경우 신앙심이나 지도자의 자질에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길이 막혀 있습니다.

남녀공학 대학의 여학생은 학생 조직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 책임자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시험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지망생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배를 마십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밤을 새워 가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1 세기 동안 간호사로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밤을 새워가며 일해 온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간호사는 되고 의사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전근이나 출장 보내기가 어렵다고 여성을 기피하는 직장도 있습니다. 항공 회사의 여 승무원은 한 달에도 몇 차례씩 집을 떠나야 하지만 별 문제없이 지상 근무와 교체해가며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전근이 되면 이산 부부로 지내면서도 가정과 직업을 무리없이 양립시키고 있습니다. 일일 생활권에 속하는 한국 안에서 우리의 생각만 바뀌면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변화에 둔감한 지도층의 가치관이 국가적으로 투자해서 길러 놓은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퇴장 시키면서 국제경쟁에서 이 나라를 처지게 하고 있습니다.

남녀로 구분하기보다 같은 권리를 타고난 사람이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꿈을 꾸면서 좋은 세상 만들기에 함께 공헌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았고 남성과 경험이 다르면서, 특성도 같지 않은 여성의 참여가 세상을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공헌하리라는 생각을 밝혀봅시다.

내년에 공군사관학교가 약간 명의 여성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그 밖의 육·해군 사관학교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세무대학, 경찰대학, 철도대학 등도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문이 닫혀 있어 고위직 공무원으로의 통로가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여성에게는 닫혀 있는, 병역 의무를 필한 사람에게 5%의 가산점을 주어 총 800 점 만점에 40 점을 얻어 주는 관행은 여성이 중견급 공무원에 끼여들기 힘든 장애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모든 직능 혹은 전문직 단체의 장은 남성이고 여성만으로 조직된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조직은 남성이 그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는 여성에게 가장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 데도 불구하고, 정치의 영역이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살림 숨씨인 점도 간과하면서 정치판은 남성에게만 유리한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거리낌없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민의 절반에 대해서만 타당한 정책을 만들고 나머지 절반의 목소리와 특성은 반영시키지 못한 채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화를 표방하고 국제 경쟁속에서 앞서기 위해 몸부림 치면서 세계 평균 정치참여 비율 11%나 북유럽 선진국의 40% 가까운 수치에 비해 15대 국회가 14 대의 2%에서 3%로 여성 의원의 비율을 올려 놓았다고는 하지만, 이 위상은 우리 뒤에 처지는 나라가 열손가락 안에 든다는 점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생각이 앞섭니다.

우리 나라는 올림픽에서 세계 10 위, 국제 교역량에서 11~13 위에 랭킹되고 국제연합의 분담금납부 순위가 작년에 21 위였던 것을 기억하고 OECD에 가입하려고 애쓰는 현재 상황에서 순위말미를 기록하는 여성의 지위는 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생각할 때 또 한국남성들의 국제적인 체면을 생각할 때 누군가가 챙겨서 바뀌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인권으로 알아주는 남성들이 많아져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여성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같아질, 그런 날을 앞당겨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